

36_2_한국어_山ノ神遺跡

야마노가미 유적

나라 지정 사적

야마노가미 유적은 세타 구릉 서쪽 끝에 위치하며, 예부터 스에키 토기가 많이 발견된 장소였습니다. 발굴 조사에 의해, 토기를 생산하는 가마터나 공방터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4호 가마는 7세기 중엽에 만들어졌습지만 사용중에, 뒷부분 절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앞부분 절반을 재이용하여 치미(용마루 양끝에 높게 부착하는 장식 기와) 4기를 구우려고 했습지만, 또 다시 천장 부분이 무너져서, 4기의 치미는 미완성인 채 방치되어, 이 장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적에서는 많은 토기가 발견되어, 오쓰궁이나 관청, 사원 등에도 공급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마터와 공방터가 함께 발견된 것은 드문 사례입니다. 야마노가미 유적은 나라의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출토된 치미 4기는 미술 공예품으로써 중요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